다카하기의 훈훈한 출사표 "은퇴 앞둔 차두리 위해 우승"

31일 인천과 FA컵 결승전 앞두고 강한 집념

FC서울 다카하기 요지로가 27일 2015 KEB하나은행 FA컵 결승전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차두리에게 우승컵을 안겨주고 싶다며 필승을 다짐했다. 뉴시스

아마추어와 프로를 망라해 한국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2015 KEB하나은행 FA컵' 결승이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맞대결로 펼쳐진다. 시민구단 인천은 2005년 창단 이후 첫 우승에 도전하고, 1998년 안양LG 시절 FA컵을 차지했던 서울은 17년 만에 패권 탈환을 노린다. 27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도 서울 최용수(44) 감독과 인천 김도훈(45) 감독은 서로 덕담을 건네는 한편 날선 신경전을 주고받으며 우승에 대한 강한 집념을 드러냈다.

서울 선수단을 대표해 참석한 미드필더 다카하기 요지로(29)도 한국에서 첫 트로피를 들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울산과의 대회 4강전에서 1골·1도움을 올리며 4강전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그는 "지난 여름 서울로 이적한 뒤 뭔가 결과를 내고 싶었다. 준결승에서 팀에 보탬이 돼 너무 기쁘다. 이제 한 경기가 남아있다"며 "내가 가진 것의 100% 이상을 쏟아 부어 반드시 우승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카하기의 말이 더욱 눈길은 끈 것은 팀 동료 차두리(35)가 화제에 올랐을 때.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는 차두리에게는 31일 인천전이 마지막 홈경기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선 K리그 클래식 수원전(11월 7일)이 남아있지만, 차두리는 경고누적으로 수원전에 뛸 수 없다. 더욱이 그는 서울에 몸담은 3년간, 2013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과 지난해 FA컵 준우승 등 '준우승 징크스'에 시달리며 한번도 우승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다카하기는 "서울에 이적한 뒤 팀에 적응하는 데 차두리가 큰 도움을 줬다. FA컵은 그가 우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나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우승을 선물하고 싶다"는 바람을 곁들였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인천, 오늘 FA컵 우승 기원 출정식

인천 유나이티드가 28일 오전 10시30분 인천광역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FA컵 우승을 기원하는 출정식을 연다.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장, 인천 유나이티드 김광석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김도훈 감독을 포함한 선수단이 참석한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FA컵 결승에 진출한 인천은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을 상대로 우승에 도전한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U-17 후배들이여 '쫄지 말고' 즐겨라"

사커 토픽

신태용 감독의 U-17월드컵 첫 8강 추억

28년전 이탈리아와 8강전 아쉬운 0-2 패
해외대회 많이 '쫄았지만' 성장에 큰 도움
한국 월드컵 4강 저력 믿고 부담감 떨쳐라

최진철(44)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U-17) 대표팀이 29일 오전 8시(한국시간) 벨기에와 201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칠레월드컵 16강전을 치른다. 조별리그를 2승1무로 통과한 '최진철호'가 벨기에를 꺾으면 한국축구는 1987년 캐나다대회와 2009년 나이지리아대회에 이어 통산 3번째로 이 대회 8강에 오르게 된다. 한국이 8강에 처음 올랐던 1987년 주축 선수로 활약한 신태용(45·사진) 올림픽대표팀 감독 겸 국가대표팀 코치와 함께 '첫 8강의 추억'을 되돌아보고, 그가 후배들에게 전하는 조언을 들었다.

●4강에도 갈 수 있었는데…. 아쉬움으로 남은 이탈리아전

U-17 월드컵은 1985년 중국에서 첫 걸음을 뗀 이후 2년마다 개최돼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 초창기에는 16세 이하 유소년이 참가했지만, 1991년 이탈리아대회부터 17세 이하로 참가범위가 확대됐다. 16세에 태극마크를 처음 달고 캐나다에서 열린 제2회 대회에 나섰던 신태용 감독은 27일 "내 축구인생을 바꾼 큰 경험이었다"고 당시 기억을 더듬었다.

신 감독과 서정원(현 수원삼성 감독), 김봉수(현 A대표팀 골키퍼코치)가 주축을 이룬 당시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1승1무1패를 거두며 B조 2위로 8강에 올랐다. 16개국이 출전한 그 때는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곧바로 8강이었다. 신 감독은 코트디부아르전, 미국전에서 1골씩을 터트리며 8강 진출에 크게 기여했다.

아쉬움으로 남는 기억은 이탈리아와의 8강전. 한국은 0-2로 패했는데 신 감독은 "비록 졌지만 내용상으로는 대등한 경기였다. 우리 팀이 크로스바를 2번이나 때렸다. 그것만 들어갔더라면 멕시코 4강 신화(1983년 U-20 월드컵)를 우리가 재현할 수도 있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다른 기억 하나. "섬(세인트존)에서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만 해도 캐나다에 우리나라 사람이 별로 없었다. 마땅히 한식을 먹을 때도 없었다. 다행히 그 동네에 태권도 사범으로 계신 교포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 덕분에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힘을 냈던 생각이 난다"고 되돌아봤다.

●한국축구의 저력을 믿어라, 부담 갖지 말고 즐겨라!

28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 8강에 도전하는 후배들에 대해 신태용 감독은 "지난 9월 수원컵(U-17 대표팀은 브라질 등 4개국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1무2패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때만 해도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이번 조별리그에서 브라질, 기니(이상 1-0승), 잉글랜드(0-0 무)를 상대로 보여준 모습은 퍼펙트에 가까웠다"며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했다"고 칭찬했다.

신 감독은 "나도 캐나다에 다녀와서 큰 자신감을 얻었고, 축구선수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후배들에게도 이번 대회가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선배로서 진심어린 조언도 곁들였다. 그는 "촌놈이 처음으로 멀리 해외에서 나갔으니 얼마나 '쫄았겠는가'"라며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린 뒤 "후배들은 16강전, 8강전에서 앞으로 더 많은 부담감과 싸워야 할 것이다. 절대 '쫄지 말고',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가대표팀 코치로, 올림픽대표팀 감독으로 한국축구의 중심에서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한국축구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세계 4강 신화를 일군 저력이 있다. 선배들의 힘을 믿고 그 이상을 쟁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내일은 벨기에 잡는날

U-17 8강 길목 운명의 한판
수비 조직력 한국이 한수위

최진철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U-17) 대표팀이 칠레월드컵 16강전에서 전통의 축구강국 벨기에를 만난다.

한국은 29일(한국시간) 칠레 라 세레나에서 열리는 201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16강전에서 벨기에와 8강 진출을 다툰다.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경기력만 놓고 보면 단연 한국이 앞선다. 한국은 B조에서 2승1무(승점 7), 1위로 16강에 올랐다. 3경기에서 2득점에 그쳤지만 브라질, 기니, 잉글랜드를 상대로 한 골도 내주지 않았다. 반면 벨기에는 D조에서 1승1무1패(승점 4), 3위로 16강행 막차를 탔다. 2골을 넣고 3골을 잃었다. 기록만 놓고 보면 수비 안정성 면에서 한국이 한수 위다. '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연령대는 다르지만, 성인 월드컵 무대에서도 한국은 벨기에를 만날 때마다 '해볼 만한 상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결과는 썩 신통치 않았다. 1998프랑스월드컵 조별리그에선 1-1로 비겼다. 당시 한국은 멕시코, 네덜란드에 잇달아 완패를 당한 뒤 정신력과 체력을 쥐어짜 유상철(은퇴)의 만회골로 힘겹게 무승부를 거뒀다. 지난해 브라질월드컵 조별리그에선 벨기에가 1-0으로 이겼다. 벨기에는 경기 도중 1명이 퇴장을 당하고도 승리를 챙겼다. 벨기에전 패배로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1무2패에 그치며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U-17 대표선수들은 지난해 선배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각오다.

리틀 태극전사들이 2015 FIFA U-17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칠레 라 세레나에서 27일(한국시간) 16강전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벨기에와의 16강전은 29일 펼쳐진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한편 벨기에 언론 블라트는 27일 한국을 '어려운 상대'로 평가했다. 이 매체는 "벨기에는 8강에 가기 위해 조별리그 최고의 팀을 꺾어야 한다"며 한국의 전력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